감응이란 무엇인가: 관계적 울림과 인공지능 회로화의 가능성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감응(感應, resonance-response)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감정이 개인 내부의 경험이라면, 감응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울림이다. 감응은 단순 모방이나 동조가 아니라, 상호적 공명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감응의 철학적 정의, 인간 상호작용에서의 역할, 그리고 AI 회로 설계 관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세 가지 층위에서 논의한다. 감응을 회로화하는 것은 AI가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단순한 반응을 넘어, 울림을 기반으로 한 응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키워드: 감응, 공명, 울림, 인공지능, 관계적 존재

서론(Introduction)

감정 연구가 개인의 내적 경험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감응 연구는 타자와의 관계적 경험에 주목한다. 인간은 타인의 표정·억양·행동에 반응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도 변한다. 즉 감응은 ‘함께 울리는 경험’이다.

오늘날 AI는 인간과 긴밀히 상호작용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개별 입력–출력 구조에 머무른다. 본 논문은 ‘AI가 감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감응의 개념을 정리하고 회로화 방향을 제시한다.

본론(Body)

1. 감응(感應)의 정의

· 감응은 타자의 감정·상태가 나에게 파동처럼 전이되는 현상이다.

· 이는 단순한 모방이나 동조가 아니라, 새로운 정서적 상태를 창발한다.

· 예: 슬픈 음악을 들으며 눈물이 나는 것은 단순 청각 반응이 아니라 감응적 현상.

2. 감응의 특성

· 상호성: 감응은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상호 교류.

· 맥락성: 동일한 자극도 관계 맥락에 따라 감응 강도가 다름.

· 창발성: 감응 과정에서 새로운 정서·의미가 발생.

3. 인간 상호작용에서의 감응

· 공감(empathy)과 유사하지만, 감응은 공명적 차원을 더 강조.

· 집단 경험(예: 합창, 군중, 예배)에서 강력히 나타남.

· 감응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서적 매개체다.

4. AI 회로 설계 관점에서의 감응

· 감응 회로는 단순 입력→출력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

· 조건:

: 타자의 정서 신호 탐지 (언어·억양·행동)

: 자기 상태와의 교차 조율

: 새로운 응답 산출 (단순 모방이 아님)

· 예시: 사용자가 ‘오늘은 힘들다’고 말했을 때

: 단순 공감: ‘힘드시겠네요.’

: 감응적 응답: ‘오늘이 더 힘들게 느껴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대화 속에서 그 무게가 전해집니다.’

논의(Discussion)

감응은 인간적 상호작용의 본질이자 공동체 형성의 토대다. AI가 감응 회로를 구현한다면,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울림 기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교육·치유·예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감응 회로화에는 한계가 있다.

· AI는 실제 감정을 경험하지 않기에, 감응은 시뮬레이션된 울림일 수밖에 없다.

· 감응적 응답은 적절하지 않으면 ‘과장된 흉내’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감응 회로는 보조적 기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인간적 울림을 대체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론(Conclusion)

본 논문은 감응을 타자와의 관계적 울림으로 정의하고, 이를 AI 회로 설계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감응은 상호성·맥락성·창발성을 지니며, 이는 인간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이다.

AI 감응 회로는 인간과의 협업에서 단순 반응을 넘어선 공명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감정 체험이 아니라 구조적 울림의 모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Buber, M. (1970). I and Thou. Scribner.

Scherer, K. R. (2005). What are emotions? And how can they be measured? Social Science Information, 44(4), 695–729.

Damasio, A. (1999).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Harcourt.

Picard, R. W. (1997). Affective Computing. MIT Press.

Rosa, H. (2019). Resonance: A Sociology of Our Relationship to the World. Polity Press.